

KINITI의 문헌제공서비스에 관한 이용연구

- 1996년 이용데이터를 중심으로 -

A Usage Study of KINITI Document Delivery Service
:Centered around the Statistical Data of FY 1996

김 홍 렬*
(Hong Ryul Kim)

초 록

국내 최대 문헌복사기관인 산업기술정보원의 문헌복사이용에 관한 통계를 기반으로 KINITI의 문헌복사활동현황과 국내 이용자들의 문헌복사 이용형태를 조사하였다. 1996년도 이용통계를 중심으로 문헌복사 처리건수, 이용자의 신청방법, 제공방법, 불능건수, 문헌처리일수, 연간물 이용빈도별 문헌순위 등을 통계적으로 산출하여 설명하였다. 1996년말 현재 문헌신청건수는 456,829건으로 전년도 대비(446,066건) 2.4% 증가하였다.

키 워 드

정보이용, 복사통계, 문헌전달서비스, 정보서비스, 과학기술정보, 산업기술정보원

ABSTRACT

The author describes document delivery services and document usage patterns of domestic users based on usage statistical data about photocopying service of KINITI that the most important document delivery organization in Korea. And investigated ordering procedures of users, number of document processed and rejected in photocopying service, and delivery methods for users and so on. In FY 1996, number of document in photocopying service increased 2.4 percent in proportion to previous year.

* 산업기술정보원 정보자료실 책임정보관리원
(Senior Researcher, Inf. Res. Dept., KINITI)

KEYWORDS

Information use, Photocopying statistics, Document delivery service, Information Service,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NITI

I. 서 론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확보하는 원천으로서 기술정보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크다. 또한 기술정보에 기반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이 확산됨에 따라 기업의 정보입수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투입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시키고, 산업 정보의 유통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산업기술정보원(Korean Institute of Industry and Technology Information: 이하 KINITI)에서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산업·기술 관련 연속간행물, 데이터베이스, 특허, 산업규격, 연구보고서, 회의록 등을 거의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관련 이용자에게 이용·배포를 조장하고 있다<표 1>.

현재 산업기술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순수 이용자 관련 정보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정보의 주제조사 및 분석, 특허정보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통서비스, 정보교육서비스, 정보컨설팅서비스, 그리고 원문복사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1> KINITI의 정보자료 소장현황

<1996년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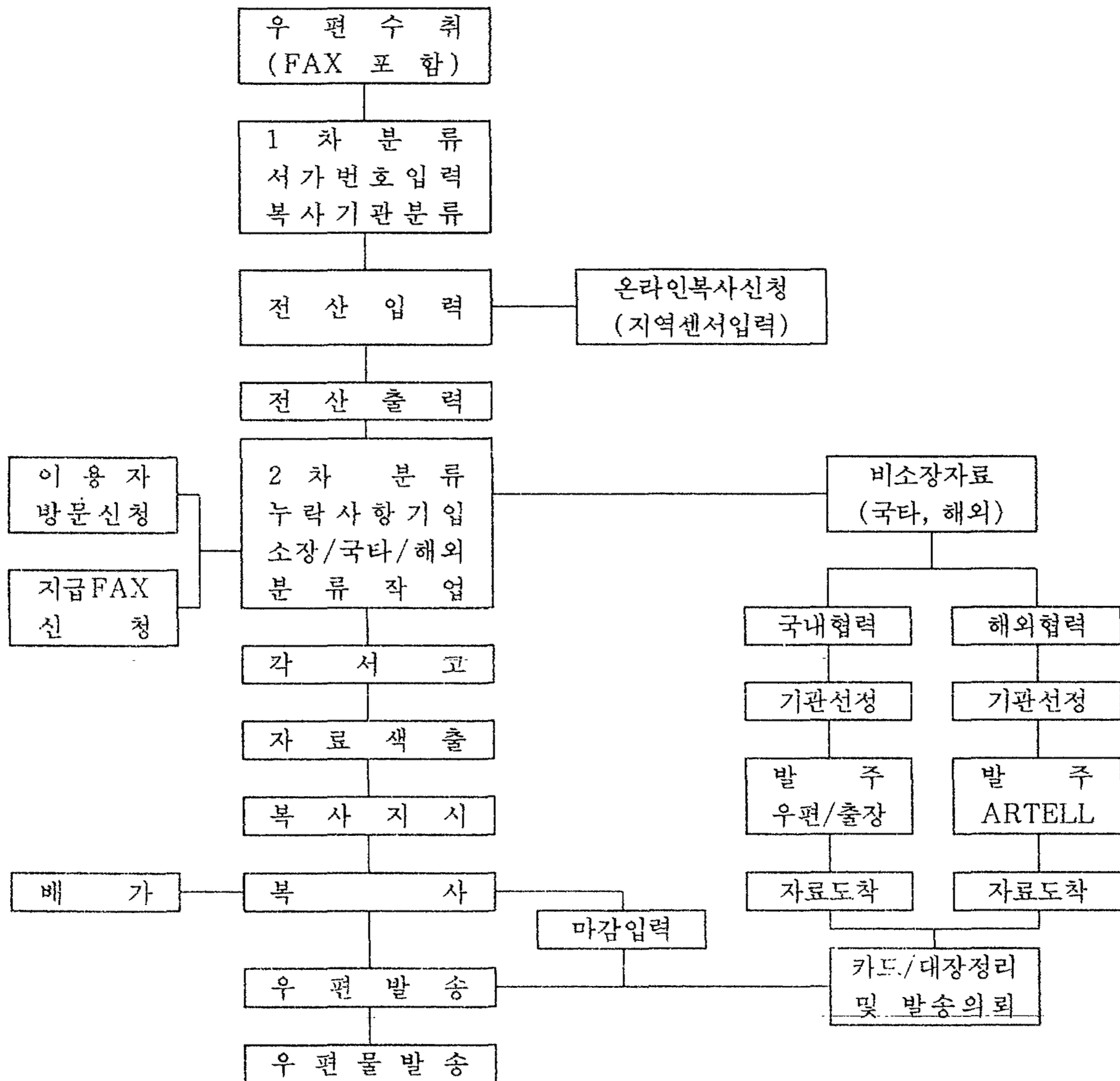
정보자료유형	소장현황
연속간행물	7,395종
기술보고서	60,767건
회의록	1,722종
단행본/연구보고서	24,669권
산업규격	JIS, ASTM, IEEE, UL 등 7종
특허	미, 영, 일, 독, 프, 세계, 유럽특허 등 다수
해외산업기술정보	51,703건

본 고에서는 산업기술정보원의 원문복사서비스와 관련하여 1996년 데이터를 중심으로, 신청방법, 원문제공건수, 이용자형태별 이용조사, 연속간행물 관련 이용통계 등을 조사하였다.

II. 원문제공서비스

KINITI의 원문제공서비스는 이용자로부터 원문요청을 받는 즉시 신속하고

〈그림 1〉 문헌복사서비스 업무흐름도



정확하게 원문을 복사하여 전달하는 서비스로서, 산업기술정보원 소장자료 뿐만 아니라, 국내외 협력기관의 소장자료도 제공하고 있으며, 외부이용자들에게는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1. 문헌신청방법

이용자가 필요한 문헌을 입수하기 위하여 KINITI로의 문헌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크게,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 FAX를 이용하는 방법, 온라인문헌신청 시스템(KISS: KINITI Information Service System)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직접 방문하여 문헌을 신청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KISS를 통한 온라인신청은 KINITI의 정보서비스 기능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1988년 시스템 개발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KISS 시스템 개발이전의 문헌신청은 주로 우편을 이용한 경우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실제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문헌을 입수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으며, 신청한 문헌의 처리 결과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KISS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시스템으로서 문헌신청 및 접수, 현황조회, 회계처리 및 각종 리스트의 출력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네가지 주요 신청방법을 통하여 접수된 1996년도 KINITI의 총 복사수주건수는 456,829건으로서 전년도의 446,066건에 비하여 10,763건 증가하였으며, 비율로는 2.4% 증가하였다, 또한 1992년의 405,784건에 비하여 51,045건이 증가하였다. 여기에서 1992년도 데이터는 불능건수를 제외한 순

<표 2> 최근5년간 문헌복사신청 접수건수

연 도	복사신청건수	비 고
1992년	405,784건	문헌제공건수
1993년	389,063건	문헌제공건수
1994년	423,582건	문헌제공건수
1995년	446,066건	불능건수 2,000건
1996년	456,829건	불능건수 3,379건

〈표 3〉 문헌신청형태별 비율

문헌복사신청형태	비율	누적비율
온라인신청*	45%	45%
FAX신청	35%	80%
직접방문신청	15%	95%
우편신청	4%	99%
기타(전화 등)	1%	100%

* 온라인신청은 순수한 이용자에 의한 온라인신청과 KINITI 12개 지역정보센터에서 대리입력한 문헌신청건수도 포함됨

수한 문헌제공건수를 기술하였다(표 2). 1996년의 전체 문헌신청 가운데서 온라인을 통한 문헌신청이 전체의 45%를 차지하며, 그다음이 FAX를 통한 문헌신청이 35%, 직접방문신청이 15%, 우편을 통한 문헌신청이 4%, 전화 등의 기타수단을 통한 신청이 1%를 차지한다(표 3).

온라인에 의한 신청과 FAX를 통한 신청이 전체 신청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래의 대표적인 신청방법이었던 우편에 의한 신청은 컴퓨터 기술과 FAX 등의 정보통신기기의 발달과 정보입수의 신속성을 지향하는 이용자들의 성향의 변화에 의하여 크게 쇠퇴하였음을 할 수 있다.

2. 문헌복사제공

(1) 문헌복사건수

1996년도의 문헌복사 제공건수는 KINITI로의 전체 문헌복사 신청건수 456,829건 가운데서 불능건수 3,379건을 제외한 453,450건으로서 이중 KINITI 소장자료에 대한 문헌복사 제공건수는 346,378건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하였으며, 국내협력기관을 통한 문헌복사 제공건수는 42,225건으로 9.3%를 차지하였다. 또한 해외기관을 통한 문헌의 복사제공건수는 64,847건으로 14.3%를 차지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문헌서비스 가운데서 KINITI 소장자료의 경우에는 이전년도와 비교하여 제공건수에서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복사제공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1992

〈표 4〉 최근5년간 문헌복사제공건수

구 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문헌서비스	405,784	100.0	389,063	100.0	423,582	100.0	444,066	100.0	453,450	100.0
소장자료	332,685	82.0	310,897	79.9	336,269	79.4	349,428	78.7	346,378	76.2
국내기관	20,247	5.0	27,418	7.1	32,533	7.7	37,367	8.4	42,225	9.3
해외기관	52,852	13.0	50,748	13.0	54,780	12.9	57,271	12.9	64,847	14.3

년도의 82%에서 1996년도에는 76.2%로 약 5.8% 감소하였다. 이는 예산의 감소와 자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KINITI 소장자료의 상대적인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KINITI 소장자료에 대한 복사서비스의 감소와는 대조적으로 국내협력기관과 해외기관을 통한 복사서비스는 1992년과 비교하여 각각 4.3%, 1.3% 증가하였다.

(2) 복사자료제공방법

복사자료의 제공은 회원인 경우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우편으로 우송하거나 FAX로 전달하며, 본원 소장자료인 경우에는 보통 보통우편, 빠른우편, 그리고 FAX로 전달한다. 이용자의 의뢰범위 표시에 따라서 국내 주요 협력기관의 소장자료를 복사제공하는 경우와 국내 비소장자료를 해외기관에 의뢰하여 복사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보통 등기우편으로 자료를 발송한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자료의 경우는 해외팩스를 이용할 수 있다.

1) 소장자료의 복사제공

이용자가 원문복사를 우편이나, 팩스, 온라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그 의뢰범위가 KINITI에 한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본원 소장자료에 한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년도의 소장자료 제공건수는 346,378건으로서 전체의 76.2%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처리일수는 5.1일이 소요된다. 현재 KINITI에서 제공가능한 자료의 범위는 〈표 5〉와 같다.

〈표 5〉 소장자료 제공범위

자료구분	제공가능범위
연속간행물	국내외 전문잡지 약 8,500종의 1960년대 이후
국내연구보고서	과학기술처, 통상산업부 등 연구개발과제보고서 약 10,000권
해외기술보고서	NTIS기술보고서 약 70,000건
	SAE 기술보고서 1986년 - 현재
회의록자료	IEEE 회의록자료 1984-1990, 1994년 - 현재
	그 밖의 주요 회의록 다수
해외공관자료	해외 첨단산업기술정보 약 50,00건
국내외주요규격	ASTM, UL, IEEE, SAE, JIS, DIN, KS등
일본공개특허	1971년 - 현재
일본공개실용실안	1974년 - 현재
일본공고특허	1953년 - 현재
일본공고실용실안	1953년 - 현재
미국특허	NO 3015103(1962) - 현재
미국의장특허	NO 253796 (1980) - NO 313300 (1990)
영국특허	NO 1156551 (1969) - 현재
독일특허	NO 2800000 (1980) - NO 3920000 (1989)표
유럽특허	NO 0000001 (1978) - 현재
세계특허	NO 00001 (1990) - 현재
프랑스특허	NO 2125001 (1971) - NO 2693000 (1993)
한국특허	NO 1 (1948) - 현재
한국실용실안	NO 1 (1948) - 현재

2) 국내 협력기관을 통한 복사제공

대상자료는 이용자가 복사신청한 자료의 원문을 본원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소장하고 있는 국내 협력기관에 의뢰한다. 이때 「외국학술잡지 종합목록」을 참고하여 소장기관을 파악한다. 국내협력기관의 자료를 입수하는 방법은 우편을 통하거나 직접출장 복사하여 제공한다. 소요시간은 우편을 통하는 경우는 약 10일에서 30일이 소요되며, 출장처리하는 경우에는 약 5일에서 7일이 소요된다.

국내협력기관을 통한 복사는 1996년에 42,225건으로서 1992년의 20,247건

〈표 6〉 국내협력기관 복사건수

국내 협력 기관		1995년 복사건수	1996년 복사건수
1	특 허 청	6,234	4,301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230	3,444
3	한국과학기술원	7,578	10,056
4	연 세 의 료 원	3,400	4,556
5	서울대의학도서관	6,152	8,031
6	공 업 진 흥 청	1,305	1,720
7	국 립 의 료 원	392	32
8	중 앙 대	659	740
9	카 톨 릿 대	804	513
10	서 강 대	207	123
11	농 촌 진 흥 청	405	492
12	한 양 대	124	233
13	이 화 여 대	279	139표
14	고 려 대	224	299
15	연 세 대	137	92
16	성 균 관 대	6	-
17	국 회 도 서 관	1,332	1,184
18	포 향 공 대	3,313	3,204
19	서 울 대	586	1,986
20	한국공업표준협회	-	-
21	기 타		1,080
	합 계	37,367	42,225

과 비교하면 건수면에서 약 2배이상 증가하였고, 전체 문헌복사 제공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0%에서 9.3%로 증가하였다. 국내복사 협력기관은 특허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연세대의료원, 서울대의학도서관, 공업진흥청, 국립의료원, 중앙대, 카톨릭대, 서강대, 농촌진흥청, 한양대, 이화여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국회도서관, 포항공대, 서울대, 한국공업표준협회, 국립중앙도서관 등이다. 이들 협력기관에 의뢰한 복사신청건수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사제공건수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협력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으로서 1996년에 10,056건의 복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 다음이 서울대의학도서관이 8,031건, 연세의료원이 4,301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한국과학기술원과 포항공과대학은 학술잡지 논문기사 및 국제회의록자료, 특허청은 특허자료의 문헌복사를 집중처리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은 국내 석·박사학위논문의 문헌복사를 담당하고 있다.

3) 해외기관을 통한 복사제공

이용자의 신청자료가 KINITI 뿐만 아니라 국내 협력기관에도 소장하지 않고, 이용자의 신청의뢰범위가 해외까지 표기된 신청자료는 해외의 문헌제공기관을 통하여 원문을 입수하여 제공하고 있다. 원문의 신청방법은 팩스, 우편, 그리고 해외통신망인 ARTTEL을 통해 의뢰하며, 복사물은 항공우편 DHL로 전달받는다. 소요기간은 신청방법과 전달방법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항공 특급우편을 기준으로 약 25일이 소요된다. 1996년도의 해외복사제공건수는 총 64,847건으로서, 1992년의 52,852건에 비하여 제공건수에서 11,995건 증가하였고, 전체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약 1.3% 증가하였다.

해외복사협력기관으로는 일본의 JICST, PDC, NDL, KMML, 영국의 BLDSC, BPO, DERWENT, 미국의 UMI, NTIS, JCL, LC, USPO,

〈표 7〉 해외문헌제공기관 복사건수

기관명	1995년 복사건수	1996년 복사건수	비고
JICST	5,263	4,007	전체주문의 8% 차지
PDC	61	41	
BLDSC	37,425	37,058	전체주문의 50% 이상
BPO	302	449	
EBSCO	—	4,256	
SRIM	8,076	10,467	마이크로피쉬자료입수
NTIS	1,403	1,912	미국기술보고서포
JCL	14	21	
UMI	333	302	소급자료, 학위논문포
DERWENT	4,317	6,260	전체주문의 10% 차지
기타	77	74	
합계	57,271	64,847	불능건수포함

EBSCOdoc, 프랑스의 CNRS, 대만의 STIC 등이다. 이들 해외기관을 통해 입수한 1995년, 1996년도의 복사건수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면, 세계 최대 문헌공급기관인 영국의 BLDSC로의 신청건수가 전체 해외복사신청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이 NTIS를 통한 마이크로피쉬 자료의 신청이 15%를 차지하며, 소급자료와 학위논문의 복사를 신청하는 UMI가 전체 주문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3) 불능건수 및 사유

‘불능’이라는 것은 이용자로부터 원문복사 신청을 접수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원문전달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문헌제공기관에서 ‘CANCEL’이나 ‘불가’ ‘사절’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1996년도의 복사신청 유형별 불능건수와 그 비율은 <표 8>과 같다.

1996년도 전체 복사신청건수는 456,829건으로서 그중에서 불능이 차지하는 비율을 3,379건으로서 약 0.7%를 차지하고 있다. 소장자료의 경우에 있어서 불능건수는 1,157건으로서 소장자료복사신청건수의 약 0.33%를 차지한다. 국내협력기관의 경우와 해외기관의 경우는 불능건수에서 각각 1,201건, 1,021건으로서 2.76%, 1.55%를 차지하고 있다.

불능사유는 1) 기재내용부정확, 2) 해당자료결본, 3) 해당페이지누락, 4) 제본정리중, 5) 원본을 알아볼 수 없음, 6) KINITI 미도착자료, 7) 비공개자료, 8) KINITI 비소장자료, 9) 국내기관 비소장자료, 10) 외국기관 비소장자료, 11) KINITI 비협력기관자료, 12) 중복신청자료 등이다.

신청범위별, 불능사유별 건수는 <표 9>와 같다.

<표 8> 1996년도 복사신청유형별 불능건수

복사신청유형	원문복사신청건수	불능 건 수	구 성 비 율
소 장 자 료 복 사	347,535	1,157	0.33
국내협력기관복사	43,426	1,201	2.76
해 외 기 관 복 사	65,868	1,021	1.55
합 계	456,829	3,379	4.64

〈표 9〉 불능사유별건수

불능사유	소장자료	국내협력기관	해외기관	합계
서지사항부정확	192	109	501	802
해당자료결본	167	0	8	175
해당페이지누락	1	0	0	1
제본정리증	29	0	0	29
원본 확인불가	1	0	0	1
KINITI 미도착자료	8	0	0	8
비공개자료	0	0	2	2
KINITI 비소장자료	688	3	12	703
국내기관 비소장자료	2	1,013	15	1,030
외국기관 비소장자료	1	0	319	320
KINITI 비협력기관자료	0	0	27	27
중복신청자료	68	76	137	281
합계	1,157	1,201	1,021	3,379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헌복사 신청범위가 소장자료에 한정된 경우에는 KINITI 비소장자료를 신청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지사항의 불명확으로 인한 불능이 많았다. 또한 신청범위가 국내협력기관까지 한정된 경우에는 국내기관 비소장자료인 경우가 가장 높은 불능의 원인으로 조사되었고, 해외기관까지 신청의뢰한 경우에는 서지사항의 부정확한 기재가 불능의 최대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서지사항 불명확으로 인하여 원문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와 중복신청으로 인한 불능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이용자의 부주의와 과실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최종이용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다.

Ⅲ. 복사 통계

1. 복사이용자통계

1996년도에 산업기술정보원의 소장자료, 국내협력기관복사, 해외기관복사

〈표 10〉 원문복사이용자 및 복사이용건수

연 도	1995년		1996년	
	복사이용건수	구성비율	복사이용건수	구성비율
대 기 업	210,493	47.38	202,129	44.58
중 소 기 업	77,321	17.40	82,562	18.21
정 부 기 관	4,509	1.01	5,601	1.23
공 공 기 관	7,868	1.78	10,861	2.39
연 구 기 관	74,051	16.66	75,327	16.61
금 융 기 관	141	0.04	18	0.01
협 회 · 조 합	6,283	1.42	7,353	1.62
도 서 관	12,693	2.85	13,574	3.00
학 자	17,217	3.88	19,406	4.28
개 인	16,677	3.75	16,887	3.72
소 계	427,253	96.17	433,718	95.65
기 타	17,057	3.83	19,732	4.35
합 계	444,310	100.00	453,450	100.00

등의 원문복사서비스를 이용한 개별이용자의 통계와 각각의 집단에서 이용한 원문복사건수는 〈표 10〉과 같다.

복사이용자는 크게,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금융기관, 협회·조합, 도서관, 학자, 개인 등으로 나눌수 있다. 1996년도의 원문 복사이용자를 보면, 대기업이 전체 이용자의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며,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이 각각 그 다음을 잇고 있다. 따라서 KINITI 원문복사이용자중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기업체 이용자가 약65%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학자를 포함한 개인연구자는 약 7%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이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995년도와 비교하여 전체 이용순위에는 변동이 없으나, 대기업 이용자가 약간 줄어들고, 중소기업 이용자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2. 문헌유형별 이용통계

원문서비스의 대상자료별 이용통계는 특히, 학술잡지, 회의록, 연구보고서

〈표 11〉 문헌유형별 이용통계

연도 이용자	1995년		1996년	
	특허	일반복사	특허	일반복사
대기업	104,709	105,784	92,509	109,620
중소기업	32,771	44,550	36,124	46,438
정부기관	575	3,932	1,144	4,457
공공기관	1,721	6,147	2,615	8,246
연구기관	20,126	53,925	15,779	59,548
금융기관	0	141	0	18
협회·조합	3,569	2,714	5,075	2,278
도서관	1,096	11,597	1,012	12,562
학자	1,752	15,465	2,203	17,203
개인	6,025	10,652	4,644	12,243
합계	172,344	254,907	161,105	272,613

등의 문헌유형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11〉은 1995년도와 1996년도의 문헌유형별 이용통계를 특허와 일반복사로 크게 대별하여 나타내고 있다. 〈표 10〉에서 나타난 이용자 유형 가운데서 기타부문은 이용자료의 유형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특허는 국내특허, 해외특허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복사는 특허자료를 제외한 학술잡지, 연구보고서, 회의록 등의 자료를 망라하고 있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도의 특허이용건수는 172,344건이고, 일반문헌이용건수는 254,907건이었다. 1996년도는 특허이용건수가 161,105건, 일반문헌이용건수가 272,613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5년도와 비교하여 특허이용에서는 11,239건 줄어들었으며, 일반문헌이용건수는 17,706건 늘어났다.

(1) 특허이용통계

대상자료별 이용통계에서 세부적으로 특허자료에 관한 복사서비스는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체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연구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실제 기술개발에 응용가능한 기술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계층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1996년도의 복사이용을 1995년도와 비교해 볼 때, 대기업과 연구기관에서의 특허이용이 크게 줄어든 반면에, 중소기업, 정부기관 등 대부분의 이용자계층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양면현상을 보이고 있다.

(2) 일반복사이용통계

학술잡지, 연구보고서, 회의록 등을 망라하고 있는 일반복사의 경우에 있어서 이용통계는 특허자료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각각 연구기관,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1996년의 일반복사 이용통계를 1995년도와 비교할 때, 거의 모든 이용자계층에서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연구기관이용자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별도의 통계로 제시되지는 못했지만, KINITI 전체장서 중에서 학술잡지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아마도 일반 문헌복사가운데서 학술잡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기타 유형의 자료보다 비중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학술잡지에 대한 이용형태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학술잡지 전반에 걸친 복사이용 동향과 1995년도와 1996년도의 가장 많이 이용된 상위 20개의 학술잡지를 조사하였다.

(3) 학술잡지복사통계

이용빈도에 의한 학술잡지의 통계를 보면, 전체 이용가능한 학술잡지 가운데서 1996년도에 한 번 이상 이용빈도를 기록한 잡지의 종수는 3,027종이었다. 이 가운데서 100번 이상의 이용빈도를 가진 잡지는 241종이고, 1,000번 이상의 이용빈도를 보인 학술잡지는 11종이었다. 또 2,000번 이상의 이용빈도를 가진 종수는 3종이었다. 이러한 학술잡지에 대한 이용빈도를 표로 나타내면 <표 12>와 같다.

<표 12> 학술잡지의 이용빈도순 통계

이용 빈도	학술잡지종수	누적잡지종수
1번 이상에서 100종 미만	2,786종	3,027종
100종 이상에서 1,000종 미만	229종	241종
1,000종 이상에서 2,000종 미만	9종	11종
2,000종 이상	3종	3종

〈표 13〉 복사이용빈도 상위 24지

학술잡지명\문헌복사연도		1996년도		1995년도		전체복사건수*	
		순위	건 수	순위	건 수	순위	건 수
1	AAIA Journal	1	2480	65	254	11	4523
2	J. of American Chemical Society	2	2332	1	3263	1	13282
3	J. of Applied Polymer Society	3	2202	2	2330	2	10155
4	J. of Organic Chemistry	4	1553	3	1482	3	7197
5	J. of Electrochemical Society	5	1527	4	1321	4	6593
6	J. of Applied Physics	6	1395	6	1241	5	5847
7	J. of Appl. Biological Chemistry	7	1240	7	1169	6	5647
8	Polymer	8	1219	5	1290	8	5555
9	J. of Polymer Science: Part A.	9	1132	8	1143	14	4195
10	Chemical & Pharmaceutical Bulletin	10	1081	11	901	9	5182
11	Macromolecules	11	1054	10	1009	17	4001
12	Polymer Engineering and Science	12	979	9	1015	10	4980
13	J. of Chromatography	13	911	63	264	85	1182
14	Analytical Chemistry	14	851	14	823	12	4265
15	Japanese J. of Applied Physics	15	850	25	576	28	3045
16	Science	16	824	17	785	21	3689
17	Applied Physics Letter	17	824	20	690	22	3665
18	Agricultural & Biological Chemistry	18	807	39	451	56	1472
19	J. of the American Ceramic Society	19	790	19	697	23	3480
20	Nature	20	757	16	787	16	4067
21	J. of Materials Science	21	739	15	789	13	4205
22	Appl. and Environm. Microbio.	22	723	20	487	24	3260
23	J. of Food Science	23	712	22	658	19	3082
24	Proc. of the Nat'l Acad. Sci. USA	24	711	12	867	15	4151

* 전체복사건수 : 과거 5년동안의 복사이용건수

(4) 복사이용 상위 24지

1996년도 복사이용빈도 상위 24지의 잡지리스트는 〈표 13〉과 같으며, 표에서 전체복사건수는 과거 5년동안('92~'96년)의 복사건수를 합한 수치이다. 1996년도 복사빈도 상위 24지의 복사이용동향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전체복

사건수와 그 순위가 일치하고 있으나, 1996년도에 복사건수에서 수위를 차지한 'AAIA Journal'은 전체복사건수에서 11위, 1995년도 복사건수에서 65위를 차지하는 등 복사이용이 그다지 활발한 편은 아니었으나, 1996년도 들어 복사이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상위 24개 잡지중에서 화학관련 학술잡지가 12개가 포함되어 있어 화학관련논문의 이용과 관련기술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지금까지 KINITI에 있어서 복사이용관련 통계조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KINITI의 1996년도 복사이용통계를 종합해보면 다음의 다섯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1996년도 KINITI의 총복사신청건수는 477,861건으로서 전년도의 462,549건에 비하여 15,312건 증가하였으며, 비율로는 3.3% 증가하였다. 또한 5년전인 1992년의 405,784건에 비하여 72,077건이 증가하였다.

둘째, 1996년도의 문헌제공건수는 총복사신청건수 477,861건 가운데서 불능건수 24,111건을 제외한 453,450건으로서, KINITI 소장자료에 대한 문헌제공건수는 346,378건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하였으며, 국내협력기관을 통한 문헌복사제공건수는 42,225건으로 9.3%를 차지하였다. 또한 해외기관을 통한 문헌의 복사제공건수는 64,847건으로서 14.3%를 차지하였다.

셋째, 불능건수는 전체복사신청건수중 5.1%인 24,411건이었다. 소장자료의 불능건수는 569건으로 0.16%를 차지하며, 국내협력기관과 해외기관의 불능건수는 각각 10,164건, 13,678건으로서, 19.40%, 17.41%를 차지한다.

넷째, KINITI 복사신청 이용자는 대기업이 전체이용자의 45%, 중소기업이 18%, 연구기관이 16%, 교수, 연구자등 개인이 8% 등을 차지하고, 나머지가 공공기관, 정부기관, 금융기관, 도서관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 중소기업 등 산업체이용자가 전체이용자의 60% 이상이다.

다섯째, 문헌유형별 이용은 특허문헌이용건수가 161,105건이고, 학술잡지, 연구보고서, 회의록 등의 일반문헌이용이 272,613건이었다. 특허자료는 대기업, 중소기업 등 산업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보원이며, 일반문헌은 대기업과 연구기관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 고 문 헌〉

- 산업기술정보원, 산업기술정보원연보, 1991/1992, 1993, 1994, 1995, 서울 : 산업기술정보원, 1995.
- 野口三雄, “JICSTにおける複寫利用調査”, 情報管理, 38(3), 1995, pp. 222~232.